

3. 30

'치과의료 경영 합리화 방안' 복지부 제출

치협은 자체적인 '치과의료 경영 합리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한 방안은 정부에 치과의료보험 수가의 인상을 요구하기 앞서 치과의료기관에서 원가절감 및 의료서비스의 개선으로 경영합리화를 꾀함으로써 수가인상 요인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다.

4. 2

보건정책국장, 의료정책과장 간담회  
치과계 현안 및 실무에 대해 논의

4. 6

제24회 협회대상(학술상) 및 제17회 신인학술상 수상 후보자 공적심사특별위원회  
고려대학교 의료원 치과 이정화 임상강사를 제17회 신인학술상 수상자로 선정

4. 7

제12회 정기이사회

지부 및 학회회칙 개정 승인의 건, 신인학술상 수상자 결정의 건, 배상책임보험 시행의 건, 공적회원 자격범위 개정의 건 및 구강보건주간행사 확대 실시의 건에 대해 논의

의료사고보상심사위원회

회원의 의료사고 보조금 신청에 관해 검토.  
교정, 임플란트에 대한 보상 사정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어 연구 검토키로 함

4. 10

식품의약품청 실무자 간담회  
치과계 현안 및 실무에 대해 논의

4. 13

보건진흥국 간담회  
치과계 현안 및 실무에 대해 논의

4. 15

현대해상화재보험(주)와 의료사고 보험 체결

치협은 이기택 협회장 등 치협임원과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의 강중호 부사장, 박임철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의 조인을 마쳤다.

4. 16

보건정책국 간담회  
치과계 현안 및 실무에 대해 논의

4. 25

제47차 정기대의원총회

제47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가 서울 힐튼호텔에서 개최됐다.  
최선정 보건복지부 차관, 황규선 의원 등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이기택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예비시험제 도입과 구강보건법 제정에 굳은 의지를 보였다.  
정관개정안, 예산안 및 일반의안 심의가 있었다.